

“법 따지기 앞서 검찰 의지 문제 ... 전두환 골프채라도 압수해야”

‘전두환추징법’ 범위 논쟁...광주 법조계 시각은?

소급적용 부작용 인정하나 사법정의가 더 중요

불법재산 자녀에 넘겼다면 개정해서라도 추징

추징시효가 만료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가 다시 정치계는 물론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67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이 미납상태인데 불구하고 전씨가 골프 등 호화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 최근 전씨의 장남인 전제국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일명 ‘전두환법’을 통해서라도 강제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역법조계에서는 추징금 대상자가 가족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거나 추징시효를 늘리고, 추징하지 못할 경우 노역 등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검찰권 행사 등을 통해 현재의 법체계 속에서도 충분히 추징이 가능할 정도로 특례를 남발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씨 추징금 징수 국가 중대사안”=지역 법조계 및 법학 전공교수의 상당수는 전씨의 사례에서 볼 때 향후 추징 결정 이전에 자녀나 친척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정호(41) 변호사는 “전씨가 불법으로 재산을 모은 뒤 소급이 없었던 자녀들에게 이를 넘겼다면 당연히 그것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전씨의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추징해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1997년 재판으로 추징이 결정된 만큼 소급입법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인정하면서도,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류전철(50·형법) 교수는 “법학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사례만을 갖고 자주 소급해 적용하면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곧 부작용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국민이 전씨의 재산 추징에 공감하고, 법원에서의 판결의 준엄함을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 전개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이러한 사안은 법적인 논리보다 정치적 결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현재 법 체계에서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추징을 못할 경우 감재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집행시효인 3년이 만료되면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다만 1원이더라도 회수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는 점에서, 지역법조계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해원(40·형법) 교수는 “검찰의 적극적인 추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15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안 내면서 골프를 친다면 그 골프채라도 압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씨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재산은 물론 누리고 있는 혜택, 가족들의 재산 등도 발굴해 공개하며 이를 회수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는 개정안들은 추징 시효 연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법리적인 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법조계 한 관계자는 “논란만 키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씨의 재산을 국가가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우는데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만이 최선은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제2컨벤션센터 개관 강운태 광주시장과 조호권 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들이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2컨벤션센터’ 개관식에서 터치버튼을 누르며 축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클린·공정·혁신...민주당 공천 3대 원칙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 출범

조경태·김승남 등 25명으로

민주당은 11일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원회 출범하고 혁신적 공천제도 개혁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천제도 혁신위 출범식에서 김한길 대표는 “우리는 선거 때마다 말하는 상향식 공천을 얘기해 왔지만 실제로 제도에 의해서, 지도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공천이 실현된 기억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혁신위원회 공천제도는 앞으로 우리 공천사에 길이 남을 혁신적인 상향식 공천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천제도혁신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최고위원은 “그동안의 말로만 개

혁, 입으로만 혁신하는 그런 폐쇄화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민주당이 처절하게 부서지고 망가졌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우리가 그런 뼈아픈 패배의 원인이 바로 공천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당시 공천을 했던 친노 주류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혁신위에서는 계파공천, 밀실공천, 나눠먹기식 공천을 배격하는 클린공천·공정공천·혁신공천을 반드시 지켜야 할 공천의 3대 원칙으로 했다”며 “공천실패는 선거패배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천제도혁신위는 ‘당원 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도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천제도를 손 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제도혁신위는 부위원장에 백재현·문병호 의원, 위원에 유대운·이원

욱·박완주·김승남·전정화·은수미·진순옥 의원 등 원내 인사 10명과, 간사인 임재훈 조직부총장을 비롯한 원외위원 14명 등 총 25인으로 구성돼 이날부터 당원 의견 청취를 위한 전국투어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원외 인사로는 정우서 경남도당 대변인(창원시의원), 박인태 민주당여성리더십소장, 고희범 제주도당위원장, 이상덕 지역위원장, 배준현 지역위원장, 오훈 변호사, 이혁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임기중 청주시의회 의장, 최홍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이상규 인하대 외래교수, 김현배 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김용명 전 LH공사 상임고문, 백종주 한국학술진흥원 이사장, 박명현 해외동포사업추진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선 단체장들의 ‘4선 도전’ 현실화 되나

지역 옮기고·또 출마하고 ... 김종식 완도군수·이석형 전 함평군수 행보에 관심

3선인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이 다 른 선거구로 옮겨 출마하려 하거나 3선을 역임한 기초단체장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한다는 소문이 지역 정치권에 퍼지면서 실현 가능성 여부

가 주목된다.

11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3선인 김종식 완도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해

당 선거구 4선 연임 금지’라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엔 완도군수 출마는 불가능하지만, 인접 선거구로 옮겨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목포 문태고등학교를 졸업한 김 군수는 고교 동문 등으로부터 “12년간의 완도군수 경험을 살려 목포를 발전시켜달라”는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반면 “선거구를 옮겨다니면서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쫓기려 한다”는 비판과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차라리 전남지사로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선을 역임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내년 함평군수 출마설도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연거푸 4선을 못하지만, 이 전 군수처럼 3선을 역임한 뒤 한차례 군수 선거(2010년)를 건너뛰고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 군수는 함평군수가 아닌 차기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래창조과학부 | DTVA KOREA

채널 설정 방법

아버님~

6월 12일 오후 2시 이후에 TV가 잘 나오는지 꼭 확인하세요~!

가수 장윤정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 디지털방송 채널재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안테나를 통해 방송을 보고 있는 가정은 6월 12일 오후 2시 이후에 일부 TV채널이 안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리모컨으로 채널설정을 다시 하면 정상적으로 TV를 볼 수 있습니다.

* 유료방송에 가입된 TV는 채널 설정 없이 정상적으로 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 꼭 기억해서 그날 확인해볼게. 고맙다!”

본 광고는 꼭 보관하셨다가 활용하세요.

“채널 설정, 알고보면 너무 쉽습니다.”

디지털TV 이용가우

- 1 TV 리모컨의 [메뉴]버튼을 눌러 **채널**항목을 찾으세요.
- 2 채널에서 **자동채널설정**을 찾아 [선택] 또는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 3 **자동채널설정**이 완료되면 [선택] 또는 [확인] 버튼을 눌러 종료하세요.

디지털컨버터+아날로그TV 이용가우

- 1 컨버터 리모컨의 노란색 [채널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 2 **다시설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채널검색을 실행하세요. 다시설정이 없으면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 3 채널검색이 완료되면 메뉴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자동채널설정 화면은 제조사 또는 모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사로 문의 하셔도 됩니다.)

문의 국번없이 124 | 홈페이지: www.digitaltv.or.kr , www.dtvkorea.org